

도내 총선 후보들 막바지 표심 잡기

“투표, 국민이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도내 유권자들에 지지 호소

4·10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눈앞에 둔 가운데, 전북 선거구 후보자들이 막바지 표심 잡기에 나섰다.

먼저, 전주갑에 출마하는 새로운미래 신원식 후보는 지난 7일 예배를 드린 후, 바울교회, 안대교회, 화산성당 등 대형교회에서 예배를 마친 신도들에게 일일이 명함을 건네고 “국정과 도정, 대기업 운영 경험이 있는 자신을 국회로 보내 전주발전의 도구로 활용해 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신 후보는 안골 사거리에서 합동유세를 갖고 “투표는 국민이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라며 4월 10일 전주 시민 모두 빠짐없이 투표소에 나아가서 기존 정치인의 부실한 의정활동을 심판하고, 신인 정치인은 앞으로 정치를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지 검증해서 반드시 투표로 시민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해 달라”고 호소했다.

국민의힘 양정무 후보(전주갑)는 8일 총력 유세전을 펼치며 막판 표심 굴회기와 지지세 확산에 집중했다.

양 후보는 9일 자정까지 남은 공식 선거기간 동안 전주갑 지역 13개 동에서 집중 유세를 통해 부동층을 흡수하고 지지층 결집을 선언하며 마라톤 유세를 펼쳤다.

양정무 후보는 “선거운동 기간 내내 바쁘게 움직이며 전주갑 선거구 유권자들에게 인사를 올렸지만, 모든 분들을 다 뵙기는 어려웠다”며 “이제 2일 남짓 남은 선거운동 기간동안 최대한 많은 유권자를 찾아뵙기 위해 마라톤 유세를 준비했다”고 기획 의도를 밝혔다.

같은 당 정운천 후보(전주을)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 시민들에 대한 호소문을 발표했다.

정 후보는 “지난 주말 사전투표가 끝나고 이제 본투표만 남겨두고 있다”며 “전북의 국회의원 10명 모두가 민주당이 되면, 전북은 또다시 고립된

섬으로 돌아갈 위기에 처해있다”라고 시민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특히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은 이문따 민주당 물표의 피해는 결국 도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맹목적인 민주당 지지의 결과로 전라대인이라고 차별을 당하는 우리 아들, 딸들의 피해가 계속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진보당 강성희 후보(전주을)는 지난 7일부터 선거운동이 끝나는 9일까지 72시간 ‘진심유세’에 나섰다.

강 후보는 “윤석열 정권에 ‘입들막’을 당했을 때, 마치 자신의 일처럼 아파하며, 함께 분노했던 전주 시민들이 너무 존경스럽고 감사하다”며 “이런 자랑스런 전주 시민이 있어 윤석열 정

권에 맞서 주저함도 두려움도 없이 싸울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작년 전주 시민들이 만들어주신 기적을 다시 한번 보여달라. 반드시 재선에 성공해 윤석열 정권 탄핵과 정권교체로 보답하겠다”며 “1년하고 차별을 당하는 우리 아들, 딸들의 피해로 보내 정치 1번지 전주의 자존심을 세워달라”고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후보(군산·김제·부안을)도 부안 유세현장에서 총선 승리를 위해 유권자의 소중한 한 표를 간곡히 호소했다.

이날 이 후보는 현장에서 “유권자의 소중한 한표 한표가 모이면 거대한 파도가 되고, 이 거대한 파도는 최호리

가 돼 윤석열 정권을 심판할 것”이라며 “이번 총선은 위대한 대한민국을 상식이 없는 나라로 만든 윤석열 정권으로부터 나라를 지켜내는 선거”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4월 10일 본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도록 총력투표를 간곡히 호소드린다”며 “우리가 행한 소중한 한표가 대한민국을 바로 세운다”고 투표 참여를 호소했다.

이원택 후보는 “역대 총선 최고치를 기록한 이번 사전투표율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잘 반영된 결과”라며 “본투표를 통해 국민은 언제나 옳고 정권이 국민의 뜻을 배반하면 투표로서 심판받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본투표 참여를 재차 강조했다.

【특별취재반



학생 없어 텅 빈 의과대학 강의실 복도를 보이고 있다.

의과대학 증원 반대로 인한 집단행동으로 약 한달간 미뤄졌던 수업이 재개된 8일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강의실 복도가 학생이 없어 한산한 모습을 /뉴시스

새미래 등 제3지대, 막판 읍소전

녹색정의당, “민주당 형제정당들로는 개혁 과제 완수 못해”

새미래, “국회 정치 바꾸기 위해 최소 5석 필요... 반드시 부상”

주시면 적은 의석으로도 반드시 필요한 개혁을 할 수 있다”며 “180석을 가지고도 개혁을 지지부진하게 한 민주당과 민주당의 형제정당들로는 개혁 과제를 제대로 완수할 수 없다. 녹색정의당에 다시 한번 지지를 보내달라”고 호소했다.

새로운미래는 오영환 총괄선대위원

장이 전국을 돌며 표심을 공략했다. 오 위원장은 서울 성동구 성수동 카페거리와 동대문구 경동시장, 마포구 홍대입구 등 변화기에서 집중유세를 펼쳤다. 이번 선거 승패를 좌우할 캐스팅보터인 2030대를 공략하기 위해서다.

오 위원장은 이날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국회 정치를 바꾸기 위해선 최소 5석이 필요하다”며 비례대표 4석 이상을 목표로 밝혔다. 그는 “반드시 부상할 수 있다고 믿는다”며 “갈등을 해결하는 존재 없이는 정치가 달라질 수 없다는 부분을 간절하게 호소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구 선거에 출마한 이낙연 대표(광주 광산)와 김종민(세종)·홍영표(인천 부평)·상임선대위원장, 설훈 후보(부천) 등도 표밭 다지기에 열중이다. 김종민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 새로운미래 후보에게 조금만 더 힘을 주시라”고 말했다. /뉴시스

“갑오동학 의병 서훈 관철시켜야”

민주 정동영 후보 “동학농민혁명, 명백한 항일투쟁”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후보(전주병)는 우리나라 독립유공자 인정 범위가 을미의병이 일어난 1895년

부터 적용되는 비탄에 1년전인 1894년 봉기한 갑오의병 농민군들이 소외되고 있다면서 22대 국회에서 ‘동학서훈’이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고 8일 밝혔다.

정 후보는 이날 난 논평을 통해 “1894년 경복궁을 점령해 우리나라 국권을 침탈한 일본군과 맞서 싸운 정병준 장군 등 동학농민군의 2차 봉기는 명백한 항일투쟁이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일본과의 마지막 전투였던 우금치에서 동학농민군 2만명이 불살당했으며 그중 1만명은 전북인이었다”면서 “항일운동 기점을 1년전으로만 적용해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이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는 김윤덕 위원장과 윤준병 의원이 합세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으나 국가보훈부와 국민의힘 반대로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중이다. 국가보훈부는 “학계 다수에서 동

학 2차 봉기를 독립유공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다 철저한 심사 절차 없이 무조건 유공자로 인정하는 것은 보훈관련법안을 무시하고 형평성을 간과한 법안”이라는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정 후보는 “보수적 시각에서 항일 동학혁명을 의병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보훈부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심사위원 가운데 동학농민혁명을 전공한 역사학자가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이라며 “현재 9종의 고고 한국사 교과서에 동학 2차 봉기를 일본군을 몰아내려는 항일구국투쟁, 즉 독립운동으로 기술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1년뒤 일어난 을미의병은 양반 유생이 주류였는데 서훈에서 우대를 받았지만 농민이 대다수였던 동학봉기는 차별을 받아왔다”며 “심의절차 없이 무조건 유공자로 인정하지는 않더라도 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대해서만 서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후보는 “을미의병 참여자 145명이 유공자로 인정받은 당해인 1895년 전봉준의 사형선고 판결에는 ‘일본군을 쳐서 물리치고 조선에 머무르는 일본인들을 나라밖으로 몰아내려는 마음을 품고 다시 군사를 일으켜 의병운동을 도모했다’고 적었다”면서 “갑오동학 의병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전북 지역 정치권이 하나로 뭉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취재반

“정당 아닌, 인물 따져보고 투표해야”

무소속 방수형 후보



무소속 방수형 후보(전주갑)가 8일 “이번 선거는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창당 사태와 부적격 후보 공천 의혹 등으로 어느 때보다 혼란 양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럴 수록 유권자들은 당이 아닌 인물에 따져보고 투표를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방수형 후보는 “지금 전주 시민들은 아프고, 힘들고, 서글프기만 하다. 이들의 아픈 곳을 치유해주고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사람을 선출해야 한다”라면서 “지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닌 기득권 쥘서기에 연명하는 지금의 무패하고 무능한 지역 정치권에서 답을 찾기는 단연코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윤석열 독재 근절을 위해 그 누구보다 앞장서 싸웠다”면서 “김경희 일가의 양명 공홍지구 특혜의혹과 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의혹의 현장에서는 건전화의발을 직접 고발하며 윤정부의 악행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 후보는 끝으로 “싸우겠다. 그리고 지키겠다. 소중한 우리의 삶을 지키고 거짓 위정자들과 싸우겠다”면서 “달콤한 김윤덕 후보를 반드시 꺾고 민주당에 들어가 더 크게 싸우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특별취재반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전주천을 살립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 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매일 캠페인